

공유 “리얼한 좀비 연기에 알면서도 무서워”

‘부산행’ 연상호 감독 “첫 실사영화, 전작과 다른 색깔의 작품”

배우 마동석·정유미·안소희 등 연기호흡…내달 20일 개봉

영화 ‘부산행’의 주인공을 맡은 배우 공유는 “영화 속 좀비 배우들과의 촬영이 연기인 줄 알아도 무서울 정도였다”고 혀를 내둘렀다.

공유는 21일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부산행’ 제작보고회에서 한국영화로는 드문 장르인 좀비물 ‘부산행’을 ‘리얼한 재난 블록버스터’로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프랑스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 상연을 통해 처음 공개된 ‘부산행’은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람들이 좀비처럼 변해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내용을 다룬다.

부산행 KTX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배경으로 공포와 긴박함을 속도감 있게 그려내 현지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문제의 열차에 탄 여러 인물은 바이러스를 피해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진 부산으로 가고자 사투를 벌인다.

가족보다 일을 우선하던 펀드매니저 ‘석우’ (공유)

유)와 외동딸 ‘수안’(김수안), 가족을 지키려 분투하는 ‘상화’(마동석)와 그의 임신한 아내 ‘성경’(정유미), 야구부 에이스 ‘영국’(최우식)과 야구부 응원단장 ‘진화’(안소희), 세 살길만 궁리하는 대기업 상무 ‘용석’(김의성)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주역 배우들은 그러나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좀비처럼 변한 ‘감염자들’을 실감나게 연기한 단역배우들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공유는 “시나리오의 완성도와 한국에서 블록버스터로는 처음 시도되는 좀비 영화라는 점에 끌려 ‘부산행’에 도전하게 됐다”면서도 “촬영 시작 전에는 내심 걱정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자주 만들어지는 좀비물이 동양인에게도 어울릴까, 잘못 구현돼서 관객들이 몰입하는 데 방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는데 분장부터 연기까지 너무나 리얼하고 무서워서 강하게 몰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유는 이어 “촬영하다가 뒤에서 쫓아오는 ‘감염자’에게 따라잡혀 손에 닿으면 연기인 줄 잊을 정도로 무서웠다. 그만큼 배우분들이 열정적으로 연기했다”며 “쉬는 시간에 기념사진을 찍고도 다가오는 분들도 있었는데 되게 무섭고 싫었다”

고 너스레를 떨었다.

마동석 역시 “판타지적 요소가 있어 설정 이외의 부분은 정말 리얼해야 하는 영화인데 배우분들이 꼭 진짜같이 연기해줘서 맡은 역할을 표현하기 수월했다”며 “우리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그분들”이라고 공을 돌렸다.

‘부산행’은 ‘돼지의 왕’, ‘사이비’ 등 사회비판적 내용의 애니메이션 영화로 주목받아온 연상호 감독의 첫 실사영화라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 감독은 “실사영화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안 하겠다고 버티기가 어려워졌다”며 “하지만 애니메이션 전작과 비슷한, 주위에서 연상호에게 기대하는 실사영화가 아니라 다른 색깔의 작품을 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배우와의 작업에 대해 “공유는 차가운 사람으로 설정된 ‘석우’역에 다양한 걸을 넣어줬고, 마동석은 액션과 유머를 담당하는데 기존에 보여준 좋은 이미지를 ‘상화’역에 집대성했다”고 평했다.

이어 “김의성은 가장 나와 달아서 좋아하는 캐릭터인 ‘용석’을 실제로 연기해줬고 김수안은 아역배우가 아니라 안에 30대 여배우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감탄했다.

연 감독은 또 “정유미는 탄탄한 연기력으로 영화에 품위를 더해줬고 최우식도 액션 중심이던 캐릭터에 감수성을 불어넣었다”고 고마워했다.

배우들도 연 감독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였다. 7월20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상영시간 115분. /연합뉴스



지난 2015년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황금표범상을 수상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홍상수 감독과 주연배우 김민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민희, 홍상수 감독과 1년째 부적절한 관계?

양측 불륜설 제기 시점 해외에 머물며 ‘묵묵부답’

홍 감독 아내 “남편 돌아올 것 믿고 이혼은 없다”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영화감독이 불륜설에 휩싸였다.

21일 한 매체는 홍 감독과 김민희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찍으면서 부적절한 사이로 발전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두 사람이 2015년 찍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감독과 배우로 만나 부적절한 사이로 발전, 1년째 이런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홍 감독이 가족들에게 김민희와의 관계를 밝히고 떠나 9개월째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2월 강원도에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2탄 성격의 작품을 찍었다. 김민희가 지난달 영화 ‘아가씨’의 주연배우 자격으로 칸 국제영화제를 찾았을 당시 홍 감독 역시 칸에서 이사벨 위페르와 인사를 촬영하기도 했다. 김민희는 이 영화에 특별출연했다.

연달아 세 작품을 같이 찍으면서 김민희는 홍 감독의 ‘뮤즈’로 떠올랐지만, 이번 불륜설로 그 이면에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받게 됐다.

홍 감독은 1985년 유학 시절 만난 A씨의 결혼해 슬하에 대학생 딸 1명을 두고 있다. 김민희는 지난해 10월 소속사를 나와 현재는 개인 매니저를 두고 활동 중이다.

두 사람의 불륜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이런 소문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홍 감독은 해외 영화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출국했고, 김민희는 ‘아가씨’ 홍보일정을 모두 마치고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불륜설이 제기된 시점에 해외에 머무는 상황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홍 감독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김민희 측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긴 마찬가지다.

영화 ‘아가씨’의 배급사인 CJ E&M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이라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매체는 홍 감독이 외국으로 떠나기 전 지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홍 감독의 아내는 “이혼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목정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공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2016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4강전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당) 45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공개토포탈 50 안병 우리말(재)		00 TV 속의 TV	00 닥터 365 05 정은표의 세계문화유산순례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좋은 생명이다)
12	00 KBS 뉴스 12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재)	00 MBC 정오뉴스 2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1	00 시청자질문 우리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중국 아름다운 사람들) 55 감성애니 하루		05 수목미니시리즈 (운빨 로맨스)(재)	55 TV 블로그 품지락
2	00 시사기획 창 55 한국인의 밤상(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55 튜튼생활제2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55 모두모두 쇼	00 3시 뉴스브리핑 5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당
4	00 4시 뉴스집중	00 수상한 휴가(재) 55 감성애니 하루(재)	25 UEFA 유로 2016 하이라이트	30 고희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고롤라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질문 우리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관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토틀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품지락 20 일일드라마 (금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가족)	30 글로벌 24 55 동스타 전곡방송 내보내기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 '10' 55 감성애니 하루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	00 수목미니시리즈 (운빨 로맨스)	00 드라마 스페셜 (원티드)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재)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보컬 전쟁 신의 목소리
12	5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5 MBC 뉴스 24 55 UEFA 유로 2016 (헝가리 : 포르투갈)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0:30 한국기행	15:10 세계사 시간여행
05:30 건강한 아침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20 꼬마철학자 후고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김명희의 돼지고기 석쇠구이와 부추 무침)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06:10 세계의 눈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00 출동! 슈퍼왕스(재)
07:30 주사위 요정 큐비츄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07:45 뽕뽕뽕 뽕뽕로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45 똥똥똥 유치원 1~3(재)
08:00 똥똥똥 유치원 1~3	12:40 지식채널 e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2:45 EBS 초대석	17:45 뽕뽕뽕 뽕뽕로(재)
09:00 출동! 슈퍼왕스	13:40 사이인3 왔다 사춘기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3:50 이말 스페이스 정글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노년 만들기)	14:00 책과 팜	19:30 EBS 뉴스
	14:30 미연마이로봇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2일(음 5월 18일 乙亥)

<p>子</p> <p>48년생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60년생 무던하게 대하는 것도 괜찮다. 72년생 도약하고 있는 단계이니 조금만 더 힘써 보라. 84년생 거의 비슷한 시세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찾게 된다. 행운의 숫자 : 96, 93</p>	<p>午</p> <p>42년생 참고 버티다 보면 자연히 풀리게 되어 있다. 54년생 얽지 큰 물은 다시 주위 담을 수 없다. 66년생 어림잡아서 행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겠다. 78년생 현대에 국한하지 말고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54, 79</p>
<p>丑</p> <p>49년생 멀리 가지 갈 필요 없이 주변을 잘 살펴보면 이익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61년생 전방위적인 확산일로에 놓여 있다. 73년생 인연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호기이니라. 85년생 믿는 도가에 발동 찍히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36, 10</p>	<p>未</p> <p>43년생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후일의 안일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55년생 소신대로 행한다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67년생 수단이나 방법에 흠결이 보인다. 79년생 집중한 만큼 비례한 성과가 있겠다. 행운의 숫자 : 88, 89</p>
<p>寅</p> <p>50년생 정답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개이므로 관행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 62년생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74년생 압박하였으니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 86년생 알면서도 소홀 한다면 악화할 것임에 틀림없다. 행운의 숫자 : 06, 38</p>	<p>申</p> <p>44년생 인기가 상승하면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56년생 객관적인 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68년생 관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배려해 주는 이가 보인다. 80년생 깊이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수하지 않게 한다. 행운의 숫자 : 92, 11</p>
<p>卯</p> <p>51년생 생활에 바탕이 되는 것이니 모두 챙겨 두도록 하라. 63년생 입체적인 구도가 절실히 요청된다. 75년생 영향력하에 놓여 있다 보니 할 말을 다 하지 못해서 분통이 터지겠다. 87년생 활기 차게 진행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7, 60</p>	<p>酉</p> <p>45년생 혼란스럽다가 차츰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국면이다. 57년생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본다면 쉽게 합치하리라. 69년생 동상이몽의 판세이므로 매우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81년생 기다려왔던 기회들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2, 85</p>
<p>辰</p> <p>40년생 본디의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이루리라. 52년생 되돌아 올 것이다. 64년생 상대가 변덕을 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 76년생 길사로 연결되는 행운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다. 88년생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2, 09</p>	<p>戌</p> <p>46년생 우여곡절 끝에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58년생 속단은 금물이니 깊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70년생 뜬구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82년생 수용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 함부로 버리지 마라. 행운의 숫자 : 74, 04</p>
<p>巳</p> <p>41년생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로다. 53년생 끼어들면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 될 것이다. 65년생 아무런 이상 없이 온전할 것이다. 77년생 애대를 필요 없다. 89년생 지난날의 공적으로 인해서 열렬히 환영받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58</p>	<p>亥</p> <p>47년생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것도 괜찮다. 59년생 할 말이 있으면 침지 말고 해야만 한다. 71년생 제대로 갖추고 바르게 인식해야 활용이 가능하다. 83년생 평상시에 찾던 것이 코앞에 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83, 40</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공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